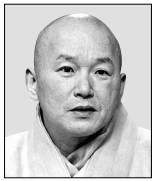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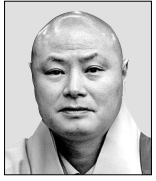
일주문



보월·도암 대중사 다례재 현조 보은 범주사 주지 스님은 1월 31일 범주사 대웅보전에서 '보월·도암 대중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신흥사 장학증서 수여식 우송 속초 신흥사 주지 스님은 2월 3일 신흥사 설법전에서 '2016년 상반기 신흥사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봉행했다.



정월대보름 방생법회 탄웅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스님은 2월 23일 부안 개암사 및 고창 문수사에서 '정월대보름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설 합동 다례 계호 서울 진관사 주지 스님은 2월 8일 진관사 합일당에서 '2016년 설 합동 다례'를 봉행했다.



정각회 2월 정기법회 강창일 국회의장회장은 2월 3일 국회의사당 본청 정각선원에서 2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하축 조용주 금강산신문 기자는 오는 2월 27일 낮 12시 40분 광주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1층 사별홀에서 신부 기하나 씨와 하축을 밝힌다.

“죽기 전 딸 얼굴 보는 것이 소원”

생명나눔 2월 치료비 지원 환자 김판석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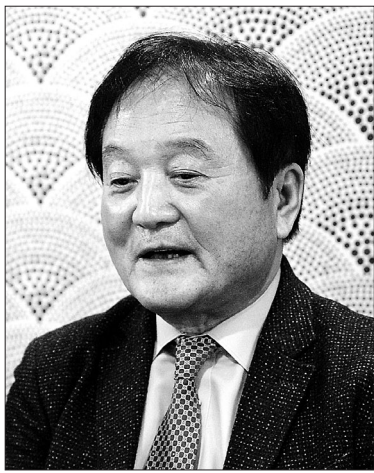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 이하 생명나눔)는 2월 치료비 지원 환자로 김판석(가명·72) 씨를 선정했다. 김 씨는 7년 전 혈액 투석을 시작했지만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해 혈관이 막혀 연증이 심해졌고, 결국 고사(高死)가 진행됐다. 이에 최근 발목아래를 모두 절단해야 했지만, 1000만원이 넘는 의족은 구매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김 씨에게는 어린 딸들과 생이별해야만 했던 아픔이 있다. 젊은 시절 운영하던 식당에 화재가 나 이에 대한 책임으로 김 씨는 수감생활을 했다. 그동안 가세(家勢)가 기울자 여동생은 김 씨의 딸 3명을 고아원에 맡겼고, 딸들은 모두 스웨덴으로 입양됐다. 김 씨는 “죽기 전 딸들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며 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생명나눔 측은 “환자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분의 도움으로 환자가 다시 일어나 자식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02)734-8050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동창회 화합·학교발전 기여할 터”

전영화 동국대 총동창회장 2월 4일, 신년계획 밝혀



화해·협력·단합 기조 삼아 지역동창회와 협력체계 구축 중단된 장학사업도 펼칠 계획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영화)가 학교 발전에 대한 동문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데 앞장선다. 전영화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2월 4일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총동창회 운영 기조를 밝혔다.

전 회장은 이날 “화해와 협력, 단합의 정신을 기조로 총동창회를 이끌어 가려 한다”며 “능력 있는 동문을 발굴하고, 동창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화합된 분위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어 “동문들의 학교발전에 대한 기여는 결국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며 “재정확보와 장학사업, 후배들의 취업에 동문들이 함께 힘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올 한 해 △뿌리 찾기 및 자긍심 고취 △조직 재정비 및 네트워크 강화 △재정 지원기반 확충 △장학사업 및 후배 취업 알선 △각각 행사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회장은 이들 사업 중 동문들의 화합과 동창회 참여의 요인인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동문회는 뿌리 찾기 사업으로 초대 동창회장이었던 만해 한운운 스님의 ‘시대정신’에 대한 재조명을

진행한다. 만해 한운운 스님의 묘소를 참배하고 해당지자체가 진행하는 선양사업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또 민해마을에서 동문템플스테이와 동문명사 특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동창회를 모두로 동문 발굴에도 앞장선다. 총동창회 집행부가 지방을 찾다니며 지역동창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5월 중에는 미주동창회 방문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 현재 중단된 장학회를 정상화하는 데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전 회장

은 “장학사업은 총동창회의 핵심사업 중 하나지만 이연택 장학회 이사장 이후 표류하고 있다”며 “지난해 빚어진 갈등 양상에서 많은 후배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면목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장학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또 모교와의 협력관계도 새롭게 모색된다. 전 회장은 “지난해 이사진 총사퇴결의 후 가시적인 실행은 보이지 않고 있다. 3월까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 재구성 등을 요청한다”며 “특히 이사회에도 동문사회에서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재가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이어 “오래 전의 기여도에 따른 배분으로는 현재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며 “과감히 투자지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히 개방이사를 적극 활용해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동문인사를 이사로 모셨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전 회장은 “학교 측이 공약사항으로 걸었던 학교발전위원회 발족과 이에 대한 동문들의 참여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회장은 “금년 한 해를 총동창회의 변혁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열어나가겠다”며 “동국대 동문들의 성원과 협력으로 열심히 일꾼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여 스님,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건립 목적 쾌척



(사)세상을향키롭게 대표 정여 스님이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 3000만원을 쾌척했다. 정여 스님은 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재)아름다운동행(대표이사 지승) 측에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정여 스님은 “중단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학교건립을 추진 중이란 소식을 들었다”며 “학교 짓는 일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참기로 마음 내게 됐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원명 스님, 서울청 경승실장 위촉

1월 29일 청장실서 위촉식 가자



강남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1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으로 위촉됐다.

원명 스님은 “경찰 불자등 신행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승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경찰청 범죄 활성화를 위해 불자회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공불련, 신년법회·임원연수

1박2일간 '공무원불자 신심 고취'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는 1월 30~31일 광주 마곡사에서 '2016년 신년법회 및 임원연수'를 봉행했다. 임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공무원불자로서의 신심 고취를 주제로 한 신년법회에는 공불련 임원 및 각 기관 불자회 임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윤호섭 기자



현성 스님, 흥은동 소외계층에 온정

쌀 20kg 100포대 전달해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서울 도선사 조실·현성정사 주지)은 2월 3일 서울 흥은2동 주민센터에서 서울 현성정사 선우신도회와 함께 ‘사랑의 쌀’ 20kg 100포대를 관내 독거어르신과 실랑민,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현성 스님은 “기복적인 한파로 유난히 추웠던 겨울,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모이면 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쌀을 들고 나왔다”며 “불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쌀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성 스님은 매년 명절과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관내 소외계층과 군부대, 교도소 등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관음중복지재단, 설맞이 떡국떡 나눔

종로구 관내 독거노인 등 150가구에

사회복지법인 관음중복지재단(이사장 홍과)은 병신년 설날을 앞두고 2월 3일 서울 종로구 관내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 150가구에 사랑의 떡국 떡 나눔 행사를 펼쳤다.

재단이사장 홍과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뜻깊은 명절을 맞아 떡국을 드시면서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이웃과 함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행복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음중복지재단은 매년 저소득층 지원사업, 장애아동 의료지원사업, 푸드뱅크 지원사업, 사랑의 김장(떡국 떡) 행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주영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Table with 4 columns: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Rows include Korean Medicine,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s.

2 학교소개

- ▶ 세계적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2016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5 문의처

- ☎ 전화: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 전화: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